

일본 섬유학회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관기

김 성 훈

한양대학교 분자시스템공학전공

2003년은 한국섬유공학회의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로, 10월 24~25일 양일간 한국섬유공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추계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Korea-Japan Joint Symposium을 한양대학교에서 개최 하였다. 이때 한국섬유공학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의 섬유연구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 하였는데, 일본 섬유학회에서는 초청강연 1편, 구두발표 20편 및 포스터 발표 8편을 발표하였고, 캐나다, 홍콩, 독일에서도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 하였다.

또한, 한국섬유공학회에서 일본섬유학회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2004년 6월 9~10일, 일본섬유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Japan-China-Korea Joint Symposium on Textile에 한국측 섬유연구자들이 참가하여 학술논문 발표 및 대학 시찰을 위해, 일본 동경 Funabori로 출발하였다. 일본 섬유학회 기간동안 한·중·일 공동 심포지움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본 학술진흥회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의 대형 학술 지원 사업인 COE (Center of Excellent) Program에 재선정된 신슈대학 섬유학부가 후원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축하하고 공동학술발표를 위해 한국측 방문단은 동경에 6월 8일 도착하였다. 일본측은 구두발표 10편, 포스터 26편, 한국측은 구두발표 10편, 포스터 25편, 중국측은 5편의 구두발표를 하였다.

일본섬유학회의 공식적인 창립 60주년 기념식은 6월 10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일본섬유학회장인 신슈대학 교수 Hirofusa Shirai 회장의 인사 강연과 일본 문부과학성 Aira Ihikawa 연구진흥국장 및 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Kensuke Yamamoto 섬유과장의 축하 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기념 강연으로 일본 고분자학회 Takeshi Endo 전회장의 'Fiber Materials in the Futre'라는 제목의 축하 강연과 일본화학섬유협회 Yoshiyuki Sumerage 회장의 'Prospect of Japanese Man-made Fiber Industry' 축하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 Massako Oka 주도로 'Fashion



Talk' 패션쇼도 진행되었다. 이어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의 2부 순서로 기념행사위원장이 Seizou Miyata 교수의 진행으로 각국에서의 축하메시지 전달이 있었다. 한국섬유공학회 서문호 회장의 축하 연설과 일본고분자학회, 일본화학회, 일본화학섬유협회, 일본섬유기계학회, 일본섬유제품 소비과학회, 일본목재학회, 일본가정학회, 일본제지연합회, 일본섬유기술사협회, 일본섬유산업연맹, 신수대학장, 동경공업대학장, 경도공예섬유대학장, 규슈대학장등의 축하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또한, 영국 Leeds 대학 섬유학과장, 미국 National Textile Center, 미국 Textile Research Institute, 미국 AATCC, 미국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중국 섬유공학회, 중국 섬유공학인협회,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등의 대표로부터 창립 기념 축하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한·중·일 공동심포지움의 발표 논문 중 구두 발표가 25편이었는데, 전공분야별로 강의실을 나누지 않고 1개의 강연장에서 진행되어 전공분야별 안배가 없어 상이한 전공의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청강함으로써 다소 지루한 느낌을 주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김승진(영남대 교수), 최영옥, 김민선(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구(충남대 교수), 김성훈(한양대 교수), 김형섭, 박창규, 서문호(건국대 교수), 김한성, 조현훅(부산대 교수), 김주용(숭실대 교수), 정용식(전북대 교수) 등이 구두 발표를 하였으며, 임승순 전임회장, 서문호 한국섬유공학회장이 공식 행사에 참여해 주었다. 51편의 포스터 발표 중, 한국측 참가자들이 25편을 발표해 한국섬유공학회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단결력을 보여 주었다. 특히, 김한성 부산대 교수와 김형섭 건국대 교수는 학술대회 공식 언어인 영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 구사도 능통해, 질의 응답에 적극 참여해줌으로써 한국섬유공학회의 차세대 선도 연구자로서의 희망을 보여 주었다.

6월 11일에는 일본 동경 신주꾸 소재 문화여자대학 (Bunka Women's University, www.bunka.ac.jp)을 시찰하였다. 문화여자대학은 1919년 문화복장학원

으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디자인 학원 뿐만이 아니라 학·석·박사 학위도 수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Kenzo 등의 패션디자이너들도 배출한 일본의 사립 의류 및 패션 전문 대학이다. Sunao Onuma 문화여자대학장, Hoshio Kakishima 국제교류부장, Makoto Tamura 사무국장, Katsuhiko Hamada 패션대학장이 한국방문단을 맞아 주었다. 문화여자대학 패션학부의 전임으로 근무하는 신은영 선생 및 유학 중인 김시정 박사과정 학생의 통역으로 대학안내 및 질의 응답이 진행 되었다. 특히, Sunao Onuma 문화여자대학장이 직접 대학 소개 및 투어를 진행해 주었다. Bunka Gakuen Fashion Resource Center는 의상 소재에 쓰일 수 있는 직·편물 샘플을 전산화하여, 연대별 지역별 패션 컬렉션을 검색하여 선택하면 벽면에 위치한 샘플장에서 샘플이 자동으로 도출되어 나오도록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당해년도 파리, 밀라노, 뉴욕 컬렉션의 패션쇼 동영상을 항상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일본 동경에 학술대회 참가 기회가 있다면, 필자는 동경대학, 동경공업대학, 동경농공대 및 문화여자대학의 시찰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섬유공학회의 신진 연구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저자 프로필



김 성 훈

1978-1984.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1985-1988. 미국 Univ. of Massachusetts Lowell Dept. of Plastics Engineering(석사)
 1988-1992. 미국 Univ. of Massachusetts Lowell Dept. of Chemistry(박사)
 1992-1993. 미국 Univ. of Massachusetts Lowell Post Doctoral Research Fellow
 1993-현재.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부교수
 전화: 02)2290-0496, Fax: 02)2281-2737